

(주)재인엠엔씨

4K/UHD를 위한 차세대 서버 시스템

Harmonic의 차세대 미디어 서버 시스템 Spectrum X

영상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자 송출 서버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Harmonic은 이미 신뢰성이 보장된 기존 서버 플랫폼에 유연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한 차원 높인 차세대 미디어 서버 시스템 Spectrum X를 공개했다. 영상제작 및 송출용으로 설계된 Spectrum X는 하나의 Chassis에서 SDI와 IP I/O를 통한 Up/Down/Cross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레이아웃 서버로, IP 플레이아웃으로 전환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SD 및 HD 형식을 지원하여 UHD로의 업그레이드 또한 가능하다.



Spectrum X는 최대 4개의 채널을 지원하며 사용이 쉬운 1RU 인제스트 및 플레이아웃 시스템으로서 기존 방송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기존의 SDI 환경에서는 SDI 서버나 IP 기반으로,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하나의 장비로 인제스트에서 플레이아웃에 이르는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새로운 하드웨어 구입 및 기존 보유 장비들을 통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공간 및 전력에 대한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미디어 서버와 차별되는 Spectrum X 소프트웨어 기반 서버는 단일 플랫폼으로 간단한 라이선스 키 인증과 재설정만으로 제작 및 플레이아웃 워크플로우를 위해 신속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양한 변경이 가능한 본 시스템은 Channel-in-a-box(CIAB)와 Harmonic의 VOS 기술을 활용하여 그래픽과 브랜딩, DVE, 마스터 제어 스위칭과 오디오 믹싱을 포함하는 통합 채널 플레이아웃(ICP) 기능으로 파일을 결합하고, 통합 마스터 제어실(iMCR) 사용, 하이브리드 베이스밴드 및 IP 플레이아웃 환경, 재난 복구 및 UHD 플레이아웃을 비롯한 다양한 적응성을 실현했다. 한마디로 많은 방송사의 운영자들은 UHD 라이브 플로우에 그래픽과 브랜딩을 함께 플레이아웃하는 최초의 UHD CIAB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Spectrum X는 Harmonic Spectrum MediaDirector, 통합 스토리지를 갖춘 MediaCenter, Polaris 플레이어아웃 관리시스템 및 MediaGrid 공유스토리지와 완전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기존의 Spectrum 서버, MediaCenter 또는 all-in-one 형식으로 다양한 구성 선택이 가능하다. 데이터 관리 및 I/O를 제어하고, 파일전송을 담당하는 MediaDirector와 영상 저장 및 관리를 위한 MediaStore를 Spectrum X와 연결 가능하고, MediaDirector와 MediaStore가 통합된 MediaCenter와 같이 연결할 수 있다. 더불어 MediaDeck과 같은 all-in-one 타입의 서버를 대신하여 Spectrum X에 내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이용한 단독 구성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콘텐츠의 저장과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MediaGrid

MediaGrid는 대용량의 파일 저장과 전송에 대한 요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미디어 전용 스토리지로, 용량 및 성능 확장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Active Scale-Out NAS 스토리지 MediaGrid

국내의 주요 방송 시장과 각종 프로덕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ediaGrid는 미디어 전용 스토리지로, 새로운 파일 기반 워크플로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MediaGrid는 뛰어난 확장성, 성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운영하기에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NAS 기반 스토리지로 SAN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구성의 복잡함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스토리지 확장 시, 컨트롤이 쉬워 대역폭 및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하게 한다. 디스크 드라이브로 이루어진 콘텐츠 서버에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게 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와 디스크 장애 복구로 자가진단 및 복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콘텐츠 복제를 통한 유연한 데이터 로드 밸런싱으로 사용이 많은 콘텐츠에 대한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였다. 온라인 기능 확장과 미디어 응용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가 별도 스토리지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이 중앙 스토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 관계자들은 고성능 파일 기반 워크플로우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는 등 미디어 전용 공유 스토리지로 사용되고 있다.

MediaGrid 주요 구성 중 하나인 Content Server 3000은 시스템 중단 없이 용량 확장 및 대역폭 확장이 가능한 중앙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으로 3.5인치 SATA2 Hot-Swap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16개가 장착 가능하고, 듀얼 리던던트(Redundant)를 위한 2개의 Active-Active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다.

TB 단위로 시작하여 시스템의 중단 및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여러 PB로 용량 및 대역폭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빠른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높은 수준의 유용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RAID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워크플로우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과 용량의 균형에 맞춘 두 개의 RAID-6 (듀얼 패리티) 및 RAID-4 (단일 패리티) 방식 옵션을 제공한다. 일반 NAS 및 클러스터 NA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속도가 느린 시리얼 접근 방식과는 달리, 여러 콘텐츠 서버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에 병렬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MediaGrid 파일시스템 드라이버(File System Driver)를 추가 라이선스 비용 및 클라이언트 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MediaGrid는 미디어 인제스트, 편집, 트랜스코딩 및 자동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과의 시스템 통합을 통해 IT분야의 일반적인 스토리지 제품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호환성과 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한다. 또한 Spectrum 비디오 서버와 MediaGrid의 통합은 기존 콘텐츠 제작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던 Tape 방식을 Tapeless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하나의 단일 공유 스토리지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제작 단계부터, 저장, 전달 및 분배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친 미디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성 및 효율성까지 향상시킨다.

파나소닉 4K 핸드헬드 카메라 AG-DVX200

DVX100의 명성을 잇는 신제품 4K 카메라 DVX200 출시



가을 출시예정인 신제품 4K 카메라 AG-DVX200

파나소닉은 시네마용 카메라인 4K Varicam, 편의성과 기동성을 갖춘 X1000에 이어서 이번에 AG-DVX200을 출시 예정이다. 먼저 바디 부분에 파격적인 크림슨 레드 컬러를 채용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파나소닉에서는 기존 DSLR과 캠코더 각각의 장점을 취합해 만든 DVX200가 현재 4K 카메라 시장의 한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2015 NAB Show에서 소개 직후, 유럽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거우며, 200대 이상의 선 발주가 진행된 상태이다.

대형 이미지 센서의 채용

편의성과 기동성을 강조한 제품인 X1000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이 이미지 센서였으나, DVX200은 4K 촬영에 있어 기동성은 물론 과감한 심도 표현에 중점을 두기 위해 4/3인치 대형 이미지 센서를 채용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이 4/3인치 이미지 센서는 심도가 얇아 뛰어난 영상미의 표현이 가능하며, 어쿠스틱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또한 120fps까지의 고속 촬영이 가능하며, V-logL(12 stop)의 와이드한 관영도 지원하여, 보다 깊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후반 색보정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라이카 렌즈의 채용

새롭게 개발된 13배 광학 줌이 가능한 라이카 디코마 렌즈를 채용하여, 필드에서의 충분한 줌배율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HD에서는 28mm의 넓은 화각을 자랑한다. 또한 UHD/60P 모드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37.2mm의 화각을 보유하고 있어 촬영 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레코딩 포맷과 저장 매체

4K 레코딩 포맷은 60p를 지원하며 MP4와 MOV로 두 장의 SD 카드에 영상데이터를 기록 가능하며, 두 장의 SD 카드는 동시에 같은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과 연속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UHD 및 FHD의 동시 기록이 가능하며(단 동시 기록시 UHD는 30P까지만 지원), 100Mbps 이상 FHD 기록시, sub에는 6M가 낮은 비트 레이트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4K 해상도에서는 모드에 따라 100Mbps 또는 150Mbps로 압축 영상을 녹화하므로 128GB의 카드로 100Mbps에서는 약 130분, 150Mbps에서는 약 90분 정도의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다.



대형 LCD 터치 패널과 OLED 뷰파인더

4K 및 얇은 심도 촬영시에도 포커싱 할 수 있도록 4.3" 2,764K 화소의 터치 가능한 LCD 패널을 채용하였다. 뷰 파인더는 3.7" 1,769K 화소의 OLED로 아이 센서에 의해 LCD 패널과 뷰파인더가 자동으로 스위칭된다. 그 외 인텔리전스 오토포커스 기능이 채택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 기능을 탑재 되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4K로 촬영 시에도 새로운 마이크로 드라이브 포커스 유닛이 채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기존 제품 대비 4배이상 영역이 확장된 O.I.S 및 5축 하이브리드 O.I.S를 동시 탑재하고 있어 열악한 핸드헬드 촬영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Sensor	4/3" Large-Format MOS
Resolution	Up to 4K (4096×2160)
Frame Rate	24 at 4K, Up to 60 at UHD/HD
Compression	MP4 or MOV
Cards	2 SD Card Slots
Audio	2-Stereo XLR Inputs
Dynamic Range	Up to 12 Stops
Lens Mount	Built-in Lens
Monitoring	Built-In Display
Color	Carbon Fiber with Red

AG-DVX200 제원

DVX200은 2015년 가을 이후 국내 출시할 예정으로 파나소닉코리아에서는 런칭세미나를 포함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가격은 미정이지만 고급 성능의 어떤 카메라보다 낮은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파나소닉코리아

4K 카메라 DMC-G7 & 웨어러블 캠코더 HX-A1 출시



파나소닉코리아가 신상품 New Hybrid Photography DMC-G7과 웨어러블 캠코더 HX-A1을 공개했다. 루믹스 DMC-G7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선보이는 새로운 4K 미러리스 카메라로 고퀄리티의 4K 연속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HX-A1은 기존의 액션캠에 비해 부피를 최소화하여 휴대성을 강조했다.

NEW HYBRID PHOTOGRAPHY LUMIX DMC- G7, 4K의 대중화 이끈다

‘루믹스 DMC-G7’(이하 G7)은 파나소닉 루믹스 G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18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다. G7은 작년 출시된 DMC-GH4, 웨어러블 캠코더 HX-A500, DMC-LX100에 이은 한국에서 4번째로 소개하는 4K 전문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4K Photo’가 가능한 G7의 강점은 생동감 있고 선명한 4K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4K Photo 기능 중 4K Pre Burst 모드는 셔터를 누르기 직전과 누른 후를 30프레임 속도로 촬영하고, 4K Burst 모드는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30프레임 속도로 촬영한다. 4K Burst S/S(Start/Stop)모드를 통해서 30프레임 속도로 4K 촬영의 시작과 정지를 조절할 수도 있다.

4K Pre Burst	셔터 누르기 직전과 직후를 30프레임 속도로 4K 연속 촬영 모드
4K Burst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30프레임 속도로 4K 연속 촬영 모드
4K Burst S/S	30프레임 속도로 4K 연속 촬영의 시작과 정지를 조절하는 모드

참고 : 4K 연속 촬영 모드

G7은 총 1,684만 화소(유효화소 1,600만 화소)의 마이크로포서즈 초고속 New Livs MOS 센서를 장착해 고해상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DFD(Depth From Defocus)를 탑재한 비너스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1/8,000초(전자식 1/16000초)의 AF 스피드를 자랑한다. DFD는 공간인식을 통해 피사체간의 거리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술로 DFD 모드 설정 시 240fps 고속 AF 검출을 통해 약 0.07초만에 초점을 잡아 낼 수 있다. 최대 49포인트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피사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인 Traking AF 기능이 기존 루믹스 G6에 비해 200% 업그레이드 됐다.

236만 화소의 OLED 전자식 라이브 뷰파인더는 본 크기의 1.34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아이센서를 통해 라이브 뷰파인더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Wi-Fi 기능도 탑재한 G7의 저장 매체는 SD, SDHC, SDXC 메모리카드를 지원하고 1회 충전 시 약 360매 가량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초경량 웨어러블 캠코더 HX-A1

'HX-A1'(이하 A1)은 카메라 일체형의 디자인으로 컴팩트함을 강조한 파나소닉코리아의 새로운 액션캠이다. 26×26×83.1mm(가로×세로×높이) 크기로 일반적인 웨어러블 캠코더보다 작고 무게도 45g으로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다.



A1의 강점은 0LUX의 낮은 조명 상황에서도 IR Light만 소지하고 있다면 선명한 고퀄리티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1/3" MOS 센서로 총 화소수 3.54메가 픽셀의 풀HD 촬영을 지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진기능과 1미터 수심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완전방수기능(IP68) 및 Wi-Fi 기능도 탑재했다.



삼아프로사운드(주)

방송용 라우드니스 이론 및 제작 실무 세미나 개최



세계적으로 라우드니스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온 TC Electronic의 한국 공식수입원인 삼아프로사운드(주)는 새로운 라우드니스 규정에 발 맞추어 6월 18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용 라우드니스 이론 및 제작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방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송출 시 음량을 일정한 레벨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TU 협회가 권고한 ITU-R BS1770-3에 맞추어 -24LKFS를 기준 레벨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라우드니스에 대한 현실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삼아프로사운드(주)는 세계적으로 라우드니스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두 명의 강사를 국내에 초대함으로써 라우드니스의 이론 및 제작 실무는 물론 관련 기술의 세계적인 추세를 국내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첫번째 강사는 TC Electronic의 기술담당이사이자 ITU, EBU, Cenelec 등의 협회에서 규정 관련 일을 하고 AES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온바 있으며 브라질, 일본, 중국의 자체 라우드니스 규정 제작에 직접 참여한 Thomas Lund로서 오랜 시간 이어져온 라우드니스 전쟁(레벨 경쟁)의 역사와 일본/미국의 라우드니스 현주소, HDTV/모바일 TV에서의 라우드니스, 최적 청취 레벨 등에 대한 이론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라우드니스의 의미와 역사, 관련 이론 등에 대해 강의한 Thomas Lund

이어서 실무 위주로 진행된 두번째 강의는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의 사운드엔지니어이자 EBU 협회 내 라우드니스 개발 그룹인 PLOUD의 의장인 Florian Camerer가 강사로 나서 유럽의 자체 라우드니스 규정인 R128과 라우드니스 미터를 이용한 믹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프로툴스 세션과 라우드니스 미터를 화면에 띄워 놓고 실제로 목표레벨에 맞추어 믹싱하는 것을 시연하였다.



유럽의 자체 라우드니스 규정인 R128 등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 Florian Camerer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분야의 음향 엔지니어들

세미나를 주관하고 현장에서 강사들의 통역을 진행했던 삼아프로사운드(주)의 방송기술 영업 담당인 정호중 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방송법에 맞추어 방송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에게 라우드니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의 라우드니스 관련 테크닉과 노하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미 최신 방송 규정들을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기술적 퀄리티를 지닌 TC 장비들의 우수성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장 밖에 전시된 TC Electronic의 라우드니스 관련 제품들
(DB6 : 방송용 오디오 프로세서, Loudness pilot : 듀얼 스테레오 라우드니스 프로세서, UpCon : 고해상도 오디오 업컨버터, System6000+TC Icon : 디지털 리버브 & 시그널 프로세서, D-22 : 디지털 방송용 딜레이, Reverb 4000 : 싱글 엔진 스테레오 리버브 프로세서)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기술자료와 강의 영상은 삼아프로사운드(주) 홈페이지(www.samasound.c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코어밸런스

NUKE STATION 런칭쇼 개최



영국 The Foundry의 영상 솔루션 국내 공급 사업과 함께 Dell 워크스테이션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공하는 지능형계측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코어밸런스가 지난 6월 17일 Nuke Station 런칭쇼를 개최했다. Nuke Station은 Dell Precision Rack 7910 워크스테이션에 The Foundry의 영상 솔루션인 Nuke Studio가 탑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영상작업이 가능하게 한다. 코어밸런스는 Nuke Station을 지난 Koba 2015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로 정식 런칭쇼를 통해 Nuke Station SW/HW적 특징과 함께 다양한 플러그인 및 성능을 공개했다.



Koba 2015 코어밸런스 부스, Dell, Foundry, NVIDIA의 솔루션이 전시되었다.

Nuke Studio는 노드베이스 기반의 VFX 기능에 편집 기능을 더해 개인 작업이나 팀작업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Composing 소프트웨어로 타임라인과 노드그래프가 결합된 인터페이스는 작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소프트

웨어로 끝마칠 수 있으며, 4K/UHD 영상을 SDI-out 하드웨어를 통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 또한, 내장 렌더팜 기능을 통해 Single/Multiple Machine에 있는 작업물을 신속하게 렌더링하며, GPU 가속 효과와 Effect의 실시간 확인, 공동 작업에서 주석을 통한 효율적 작업 환경 제공 등이 가능하다.

DELL Precision Rack 7910 워크스테이션은 확장성과 보안성을 갖춘 2U 랙마운트의 워크스테이션으로 프로세서당 최대 18개 코어를 제공하는 Intel Xeon E5-2600 v3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NVIDIA Quadro 및 NVIDIA Tesla 그래픽 및 메모리, 12Gb/s RAID 컨트롤러를 통한 이전 세대 대비 두 배의 I/O 속도 등 작업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먼저 김일환 코어밸런스 대표와 김경호 Foundry 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 고명한 코어밸런스 이사는 NUKE STATION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하였고, 박수인 코어밸런스 대리는 NUKE STATION에 대한 장점 및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NUKE STUDIO가 NUKE에 비해 타임라인이 생기면서 컷편집이 가능해졌음을 강조했고, 4K 및 색보정까지 지원함으로써 개인작업이나 팀작업에서 신속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DELL Precision Rack 7910의 하드웨어적 특징 및 NUKE STUDIO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장점들을 소개했다.

OS	Windows® 8.1 Professional 64비트 (한국어)
CPU	등록 인텔 제온 프로세서 E5-2687W v3 (10C HT, 25MB 캐시, 3.1GHz 터보) x 2ea
RAM	512GB (32GBx16) 2133MHz DDR4 LRDIMM ECC
HDD	Dell SATA SSD 512GB x 2ea
VIDEO	Nvidia Quadro K6000
GPU	Nvidia Tesla K40
Video & Audio	AJA : KONA 4K
HBA	M810
POWER	2200 Watts

DELL Precision Rack 7910

DELL이 자랑하는 최강 워크스테이션인 Precision Rack 7910이 NUKE STATION과 만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냅니다.



세미나에서 소개된 DELL Precision Rack 7910 워크스테이션 사양과 4K 편집 부분 시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양효섭 한국비주얼 팀장의 Baselight for NUKE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플러그인 형태로 NUKE에 제공되는 베이스라이트는 무제한의 컬러 레이어를 지원하며 쉬운 UI 사용, State(FilmLight), Artist Color(Avid), Element/Wave(Tangent) 패널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를 위해 1차 색보정에서 Film Grade, Video Grade, Curve Grade, Hue Shift, Six Vector 등을 지원하며, Tracking 기능과 Layer Blending, Stack, Display, BLG(Baselight Grade File), ACES Color Space 등에 관한 기능 및 소개가 계속됐다. 또한 몇몇 기능의 시연이 진행됐다.



양효섭 한국비주얼 팀장과 시연에 사용된 DELL Precision Rack 7910 워크스테이션

Foundry의 3D 디자인 솔루션인 MODO의 최신버전에 대한 소개도 공개되었다. MODO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3D modeling, animation, sculpting, effects, rendering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all in one 패키지로 Modeling, Texturing, Rendering 영역에서의 최신 기능이 설명 및 시연되었다.

티브이로직

IFSEC에서 신제품 'Full HD AHD DVR' 공개

티브이로직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보안기기전시회 IFSEC(International Fire & Security Exhibition)에 참가해 Full HD AHD DVR과 TVI Q-BRID 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Full HD AHD DVR

신제품 Full HD AHD DVR은 1080p의 Full HD급 영상을 지원하는 AHD에 960H, 1080p Full HD TVI 하이브리드 DVR의 기능이 결합되어 아날로그 카메라, TVI 카메라, AHD 카메라와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CCTV의 동축케이블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비용을 최소화해 고화질 시스템 구성에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Full HD AHD DVR 시리즈는 4채널, 8채널, 12채널 모델이 있으며 리얼타임 라이브 기능을 제공한다. 각 채널이 초 당 15프레임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4채널의 경우 초 당 60프레임, 8채널 초 당 120프레임, 16채널 초 당 240프레임의 Full HD 1080p 하프 리얼타임 레코드 기능을 지원하며 최대 300미터까지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여 거리 제약에 따른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TVI Q-BRID 시리즈

TVI Q-BRID 시리즈는 1080P TVI, 960H에 IP 하이브리드 DVR이 결합된 제품으로 TVI Q-BRID, TVI Q-BRID Lite 총 2종으로 구성된다. TVI Q-BRID는 1080p 리얼타임 라이브 & 녹화 기능을 지원하며 IP 카메라를 최대 4대까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HD SPOT 기능을 지원하며, 아날로그 SPOT뿐만 아니라 Full HD 급 영상 SPOT 출력을 통해 선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TVI Q-BRID Lite는 1080p 리얼타임 라이브 기능이 지원되며 4채널은 IP 카메라 1대, 8채널은 2대, 16채널은 4대까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고, 8채널과 16채널은 HD SPOT 기능을 제공한다.

TVI Q-BRID 시리즈는 티브이로직이 특허를 획득한 올-하이브리드(All-Hybrid) 기술을 적용하여 어떤 입력 신호를 연결해도 자동으로 인식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오토 디텍션(Auto Detection) 기능을 제공하며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한 시공 및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1080p 급의 고해상도 영상을 최대 400m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

블랙매직디자인

Blackmagic URSA Mini 4K/4.6K 발표



블랙매직 한국 공식 수입사 ㈜진성디브이가 Blackmagic URSA Mini 카메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URSA 카메라는 URSA 4K, 4.6K와 URSA Mini 4K, 4.6K로 총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핸드헬드 슈퍼 35 디지털 필름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건 신형 블랙매직 디자인의 새로운 카메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셔터와 뛰어난 성능의 15스탑 다이내믹 레인지, 4K와 4.6K 슈퍼 35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초소형 URSA Mini를 소개합니다. 초소형/초경량 디자인은 핸드헬드 촬영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고, 슈퍼 35mm 필름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향상된 다이내믹 레인지를 지원하는 핸드헬드 카메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URSA Mini로 초당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고휘도 5인치 접이식 뷰파인더와 듀얼 RAW 및 ProRes 리코더 등을 탑재했습니다. URSA Mini는 4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4.6K나 4K 이미지 센서, EF 및 PL 렌즈 마운트 중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URSA Mini를 사용하면 높은 프레임레이트로 촬영한 후 편집 프레임레이트로 재생할 수 있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센서 프레임레이트 설정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슬로우 모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SA Mini는 풀 해상도 4.6K 레코딩을 최대 60fps로 캡처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1080 HD는 최대 120fps로 캡처 기능을 제공합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고 높은 프레임레이트의 슬로우 모션을 원할 경우, 기존의 URSA 모델을 사용해 100fps의 고해상도 4.6K 이미지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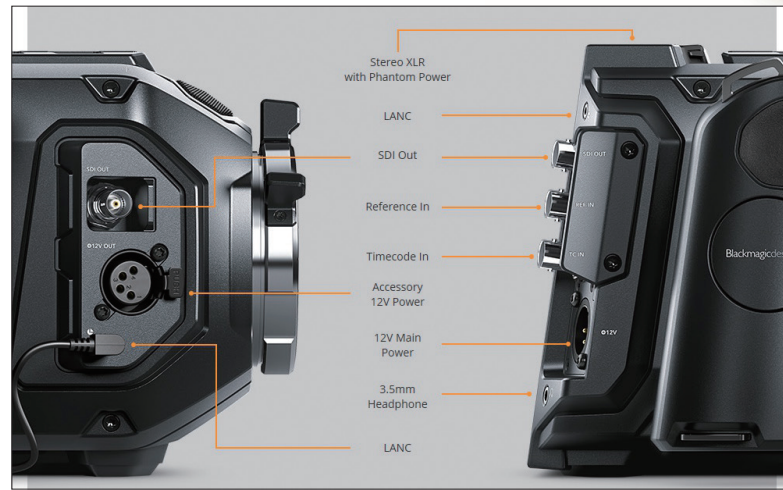
URSA Mini는 4.6K 기반의 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장착해 UHD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UHD로 작업하게 되면 디베이어링 이미지 처리과정을 거쳐 추가 해상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풀컬러로 복원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URSA Mini의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는 최첨단 방송 카메라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훌륭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색보정을 통해 이런 이미지를 진정한 시네마틱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빠른 후반 작업을 위해 일반 비디오 수준의 다이내믹 레인지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색보정 없이 훌륭한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URSA Mini는 각각 2가지 종류의 센서와 렌즈 마운트로 출시되어 총 4가지 모델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EF 및 PL 렌즈 마운트 모델에서는 15스탑 다이내믹 레인지를 장착한 4.6K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할 경우, 좀 더 경제적인 EF 및 PL 렌즈 마운트 모델에서 12스탑 다이내믹 레인지를 장착한 4K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L 마운트는 전문가용 시네마 렌즈와 호환되며, EF 모델을 선택할 경우 Zeiss, Canon, Sigma 등의 고품질 사진 렌즈 중 원하는 제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EF 렌즈는 고해상도 DSLR 카메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광학 기술을 통해 URSA Mini 4.6K 센서의 고해상도 영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URSA 카메라에서는 스크린만 지원되는 영상 확인이 새로운 Blackmagic URSA Viewfinder 옵션을 통해 뷰파인더로 가능해졌습니다. 정밀 유리 광학기술을 접목한 고해상도 1920×1080 OLED 디스플레이와 조절 가능한 디오퍼, 내장 디지털 포커스 차트 등을 탑재해 매번 카메라의 초점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OLED 스크린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장 센서를 탑재해 사용자가 뷰파인더를 확인할 경우에만 OLED가 켜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Blackmagic URSA Viewfinder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 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 라이트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URSA 카메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큰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이번 URSA Mini 카메라에서도 접이식 고해상도 5인치 모니터를 채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설정, 컨트롤, 모니터링 도구 등을 손가락 하나로 제어할 수 있기에,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복잡한 메뉴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카메라 관련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타임코드, 레벨 확인용 히스토그램, 오디오 레벨, 포커스 확인용 포커스 피킹 표시 장치 등을 터치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ackmagic URSA Mini는 12G-SDI 출력, HD-SDI 모니터링 출력, 2개의 LANC 입력, 팬텀 파워를 사용한 균형 XLR 오디오, 타임코드 입력, 레퍼런스 입력 등과 같은 다중 연결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전면 우측에 4핀 XLR DC 및 HD-SDI 모니터링 출력이 마련되어 있어 뷰파인더나 촬영장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하기 최적입니다. 12G-SDI 출력은 싱글 BNC 케이블을 사용해 최대 2160p60까지 처리 가능하며, 촬영 포맷에 따라 6G-SDI나 HD-SDI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URSA Mini에는 제품 하단에 여러 개의 ⅜인치 마운팅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삼각대에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촬영 시 URSA Mini를 삼각대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핸드헬드 모드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원위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Blackmagic URSA Mini 숄더 마운트 세트를 옵션으로 선택해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세트에는 로제트가 내장된 숄더 패드, 레일 마운트, 통합형 퀵 릴리즈 장착 포인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숄더 패드를 제거하지 않고도 퀵 릴리즈에 바로 장착할 수 있으며, 상단 핸들이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를 운반하거나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URSA Mini는 기존의 URSA 카메라보다 컴팩트해 졌지만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장편영화, TV광고,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회사 영상, 뉴스취재 그 어디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URSA Mini의 시네마풍 컬러와 컨버팅 없이 바로 편집 가능한 비디오 포맷. 이러한 URSA Mini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진성디브이 전화 : 1644-2731